

金系 高麗鏡의 제작과 유통

박진경*

I. 머리말
II. 문헌기록에 보이는 金과의 교류
III. 고려에 유입된 金鏡과 銘文
IV. 金의 영향과 金系 高麗鏡의 유통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시대에는 宋, 遼, 金, 元에서 제작된 銅鏡이 수입되었고, 이를 다시 부어내 再鑄하거나 일부를 모방한 倣製鏡까지 폭넓게 제작되었다. 高麗鏡은 수입된 외래경과 고려에서 제작된 동경까지를 통칭한 개념으로서 근대기 산발적인 발굴과 극심한 도굴로 그간 편년과 제작지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성에서 집중 출토된 金鏡이 고려경의 제작과 연대에 자료를 제공해주어 주목된다.¹ 金鏡에는 자체에 銘文이 있어 고려 중기 金과의 교류를 반영할 뿐 아니라 고려시대 제작된 외래경의 성격과 제작 양상을 분석해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간 고려경의 형태와 함께 문양에 따른 양식계보가 정리되었고, 고려에서 특히 성행했던 문양에 초점을 맞춰 도상에 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² 이를 통해 唐鏡, 遼鏡, 宋鏡, 元鏡과 같은 계보 뿐 아니라 고려 자체 제작경의 특징도 어느 정도 밝혀진 바 있다.

*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1 銅鏡은 시대에 따라 唐鏡, 宋鏡, 金鏡, 高麗鏡으로 나눌 수 있고, 양식에 따라 漢系, 宋系, 遼系, 金系 銅鏡으로 분류할 수 있다. 李蘭暎, 『韓國의 銅鏡』(정신문화연구원, 1984), pp. 14-20.

2 李蘭暎, 『高麗鏡 研究』(신원출판사, 2003); 황정숙, 『高麗 中·後期 思想을 통해본 銅鏡 文樣의 象徵性 研究』(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고유민, 『高麗 龍樹殿閣文鏡 研究』(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안경숙, 『高麗時代 倣製鏡 製作에 대한 研究』, 『한반도의 청동기제작기술과 동아시아의 고경』(경주박물관, 2007); 우주옥, 『高麗時代 線刻佛像鏡 研究』(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Charlotte Horlyck, *Mirrors in Koryo society—Theirs history, use and meanings* (London: SOAS University of London Press, 200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龍樹殿閣文鏡을 비롯한 고려경이 金의 영역이었던 중국 흑룡강, 요녕에서 출토되어 관심이 집중된다. 금과 고려에서 동시에 고려경이 확인되는 상황은 실제적인 제작지와 두 나라 사이의 교역 상황을 궁금케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려와 동경이 교역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문헌 및 출토자료에 보이는 양국의 교역양상을 살피고, 이와 함께 동경에 명문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개성부근을 중심으로 출토된 金鏡의 銘文을 분석해 銅鏡의 교역시기와 유통경로, 문양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金鏡이 수입되기도 하지만 金系 銅鏡을 기반으로 새롭게 제작된 고려경의 특징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金鏡이 고려에 수용되어 성행했던 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 관계를 양식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고려에서 제작된 동경이 중국에서 유통되는 문제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최근 도자에서도 金에 대한 영향관계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³ 이 글을 통해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金과의 교역이 고려미술에 미친 영향과 함께 고려경의 제작과 유통 상황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문헌기록에 보이는 金과의 교류

다수의 金鏡이 개성을 중심으로 출토되었던 것처럼 문헌에 나타나는 양국의 교역은 상당히 활발하였다.⁴ 金이 유화정책으로 고려 상황에 간섭하지 않고 주로 묵인 또는 인정해줌으로써 13세기 중반 몽골의 침입이 시작될 때까지 고려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 또한 金이 거란, 몽골과 달리 지불하기 어려운 공물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도 12~13세기 고려의 문화 발전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⁵

주지하다시피 양국의 교역은 공, 사무역으로 크게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공무역에는 공식

³ 이종민, 「高麗中期輸入中國白磁의 系統과 性格」, 『미술사연구』no.25(2011), pp. 137-160; 장남원, 「10~12세기 고려와 遼·金도자의 교류」, 『미술사학』23(2009), pp. 171-203.

⁴ 金은 건국 이전부터 고려와 오랜 기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려를 부모의 나라 또는 은혜의 나라로 생각했다. 이러한 여진의 인식 때문인지 고려에 대해서는 유화정책을 견지하였다. 麗·金 관계사에 대한 연구로는 朴漢男,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研究』(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金渭顯, 『遼金史研究』(裕豐出版社, 1996); 朴漢男, 「12세기 麗金交易에 대한 검토」, 『大東文化研究』第31輯(1996), pp. 95-96; 李東馥, 『東北亞細亞史研究-金代女眞社會의 構成』(潮閣, 1986); 조복현, 「12世紀 初期 高麗-金 關係의 전개와 상호 인식」, 『中國學報』第61輯(2010), pp. 243-268; 黃純艷, 「南宋과 金의 朝貢體系 속의 高麗」, 『진단학보』제114호(2012), pp. 125-161.

⁵ 안귀숙, 「高麗時代 金屬工藝의 對中 交涉」, 『高麗美術의 對外交涉』(예경, 2004), pp. 153-192; 崔應天, 「고려 후기 전환기의 미술 특집: 高麗後期の 金屬工藝」, 『講座美術史』제22호(2004), pp. 125-154.

표 1 高麗와 金의 使臣往來

	수교前 1115- 1126	仁宗 1126- 1146	毅宗 1146- 1170	明宗 1170- 1197	神宗 1197- 1204	熙宗 1204- 1211	康宗 1212- 1213	高宗 1214- 1234	합계
高麗→金	(2)	79	91	107	23	34	3	2	339
金→高麗	(2)	34	38	42	7	12	1	3	137

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공무역과 그에 참가한 사신들이 개인 자격으로 행하는 부대무역이 있다. 양국은 116년간을 교류하면서 宋, 遼에 비해 더 많은 사신이 오고갔으며, 고려가 2.5배 가량 더 많은 사신을 보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표 1).⁶ 金은 北宋의 수도인 開封을 포함한 화북전역을 차지함으로써 중원의 발달된 기술력과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였고, 南宋으로부터 오는 막대한 세금과 서역상인들의 활약으로 온갖 물자가 충분히 공급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南宋과의 조공관계도 1163년 이후 소원해졌고 무신의 난 이후 새로운 권력층에 의해 親金政策이 추진되면서 금과의 교역은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조공무역과 함께 이루어진 부대무역도 문헌을 통해 확인된다. 金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 중 高麗 使臣만 私獻을 지속하는데 이는 宋이나 西夏에는 없었던 典禮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⁷ 또한 『高麗史』에 해마다 사명을 받들고 金에 가는 자들이 무역의 이익을 노려 많은 물품을 가져가 운반하는 역사들이 고통스러워한다거나 金에 파견될 관리에게 자신의 하인을 從人으로 넣기 위해 뇌물을 바친다거나, 金에 가기 위해 郡縣民들을 수탈한다는 기록이 있다.⁸ 이를 통해 당시 金과의 使行은 큰 이익을 주었고 이로 발생하는 사회 부조리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다.

공무역 외에도 양국의 사무역 또한 활발하였다. 압록강 유역 두 곳에서만 짧게 이루어졌던 이전과 달리, 金과는 압록강뿐 아니라 동해안 주변에 위치한 함경남도 定平과 靑州(지금의 북청)에서도 互市가 열렸던 상황이었다.⁹ 또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밀무역이 국가 嚴刑에도

6 양국의 조공 횟수를 살펴보면 高麗:金(339 회:137 회), 高麗:宋(45 회:48 회), 高麗:遼(232 회:239 회)로 고려는 금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사신을 파견해 이전과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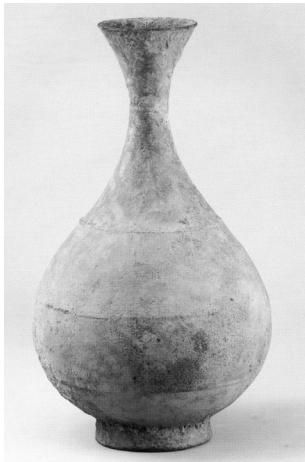
7 『金史』卷35, 列傳73 外國 下 高麗傳 世宗 大定5年. 박한남, 앞의 논문 (1996), p. 109.

8 『高麗史』卷128, 列傳41 鄭仲夫 附 宋有仁傳 “...舊例宰相奉使如金其僉從有定額要市利者路使銀數斤然後得行”; 同書 卷20, 世家 20 明宗 13年 “...每歲奉使如金者利於懸遷多齊土物轉輸之幣驛吏苦之夾帶私橫宜有定額違者奪職...”; 同書 卷99, 列傳12 李公升傳 “...嘗求使北朝沿路需索郡縣奔走賂遺萬計...”

9 북쪽 지방의 정세가 혼란한 경우, 국가의 안위를 위해 金과의 교역이 폐쇄되기도 했으나 무역이 주는 경제적인 이익이 컸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지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박한남, 앞의 논문 (1996), pp. 114-117.

불구하고 일반 상인 뿐 아니라 고려 왕실까지 이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¹⁰ 이와 같이 금과의 교역은 공·사무역의 다양한 형태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양국의 교역에서 흥미로운 점은 고려 銅器나 종이와 같은 문방용품이 수출되었다는 것이다. 銅器의 경우, 1194년 고려에 방문했던 金使臣이 高麗 銅器를 구입해 귀환했는데 모두 국가에 매도할 것을 의무화했던 기록이 있다.¹¹ 이는 금과의 교역에서 高麗 銅器가 수출되었고 金 정부가 통제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당시 중국에서는 ‘高麗銅’이라 불릴 만큼 이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 957년 後周에 5만근이 넘는 黃銅을 보내거나 銅器 1천근을 거란에 보냈던 기록이 있고, 宋인들이 高麗 銅器를 구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부탁했던 기록도 전해진다.¹² 이로 볼 때 금과의 거래에서도 高麗 銅器는 꾸준히 교역되었던 것이다.



도1 〈銅製玉壺春瓶〉, 遼寧 莊河市 平山 出土, 높이 32.1cm, 입지름 7.3cm, 바닥지름 8.5cm, 旅順博物館 소장.

이처럼 문헌에서 확인되는 高麗 銅器가 많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고려 銅製瓶 즉 구연부가 외반해 측면이 S자 곡선을 띠는 玉壺春瓶이 遼寧 莊河市 平山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다(도 1). 표면에 남아있는 여러 층의 돌대에서 고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전해지는 국내 수량은 많은 편이다. 특히 이 중 雙魚文鏡이 발견된 서천 추동리 유적에서 이와 같은 동기가 출토되어 12~13세기에는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¹³ 이와 더불어 고려를 대표하는 銅製 燕尾形 손가락 역시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경향이다.¹⁴ 정확한 제작지를 파악할 수 없으나 금에 들어와 완성된 기형으로 밝혀져 양국의 영향관계 속에 성행했던 손가락 형태인 것만은 분명하다.

금에서 고려 동기가 수입되었던 배경에는 고려의 뛰어난 제작기술도 있었겠지만 당시 동기의 주원료였던 구리수급과 연

¹⁰ 무신집권기였던 明宗35年(1185) 궁중에서 쓸 絹絲가 떨어지자 명종이 신임 西北面兵馬使 李知命에게 “義州는 비록 양국 간의 互市를 금하는 곳이나 경은 龍州庫에 있는 紵布를 내어다가 契丹絲와 바꾸어 진상하라”라는 밀매를 명령한 예가 있다. 『高麗史』卷20, 世家20 明宗35年 正月 辛丑 “義州雖禁兩國互市卿宜取龍州庫貯布丹絲以進故有是獻”

¹¹ 志第29 食貨3 錢幣 “又諭旨有司, 凡使高麗還者, 所得銅器令盡買之.”

¹² 金潤顯,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경인문화사, 2004), pp. 342~343; 이정신, 「고려시대 銅의 사용현황과 銅所」, 『한국사학보』25 (2006), pp. 151~181.

¹³ 서천 추동리 유적에서도 이와 동일한 형태의 靑銅製玉壺春瓶이 연미형 청동손가락과 짓가락, 청동합과 출토되었다. 12세 유물의 중심이며 높이가 31.7cm로 돌대까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충청문화재연구원, 『舒川 楸洞里 遺蹟(1地區)』(2006), pp. 280~281, 455~456.

¹⁴ 정의도, 『宋·遼·金·元 수저(匙箸) 編年研究 : 어미형손가락의 출현』, 『文物研究』No.17(2010), pp. 143~147.

관저 동기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금의 경우, 黑龍江 賓縣 근처에서 銅鑛 및 채굴, 제련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였지만 南宋보다 구리가 더 귀했던 상황이었다. 구리산지의 대부분이 南宋에 속한 廣東, 福建, 浙江, 四川에 집중해 있어 원료를 조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¹⁵ 또한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銅禁政策이 시행되었던 금의 정황에서도 드러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해 제작했던 銅鏡과의 문제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금의 銅禁政策을 알아보고 그 제도 하에 제작 및 관리되었던 金鏡의 상황과 함께 개성에서 출토된 金鏡 및 銘文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고려에 유입된 金鏡과 銘文

1. 금의 銅禁政策과 銘文

이미 언급하였듯 금은 銅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강력한 銅禁政策이 금에 시행되었고 특수한 환경 속에 銅鏡이 제작 및 관리되어 주목된다. 동금정책은 구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銅器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된다. 중국의 경우, 北宋 이전인 唐부터 일찍이 시행되었는데¹⁶ 宋 이전에는 銅鏡의 생산까지 금지했던 내용은 찾기 어렵다. 北宋은 元豐年間(1078~1085)을 정점으로 매해 구리 산출량이 급감해 동경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¹⁷ 북송에 들어와 동경의 두께가 얇아지고 문양의 깊이가 얕아지는 외형적인 변화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金은 부족한 구리를 조달하기 위해 大定年間(1161~1189) 銅鏡을 포함한 다양한 銅器를 민간에서 매입할 정도로 심각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던 흔적이 문헌에 남아있다.¹⁸ 금 정부

¹⁵ 王禹浪 외, 『金代黑龍江流域의 農業和手工業』, 『黑龍江民族叢刊』(2005年 第3期), pp. 41-46; 何堂坤, 앞의 책, pp. 27-29.

¹⁶ 중국의 경우 8~9세기 鑄錢에 따른 銅禁令이 시행되기 시작해 宋에 와서도 銅器에 관한 생산규제가 꾸준히 지속되었다. 唐의 경우, 銅鏡의 생산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과 937年 국가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銅鏡을 專賣했던 기록이 있다. 林根七, 『唐後期 錢荒對策의 展開와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Vol.32(1990), pp. 59-112; 植松勇介, 『唐末五代の鏡』, 『古代文化』(2005年 第7卷), pp. 30~38; 陳章龍, 『宋代銅鏡分期初探』(吉林:吉林大學校 考古學博物館學科 碩士學位論文, 2006), pp. 60-61.

¹⁷ 구리 산출량을 보면 元豐年間(1078~1085) 14,605,969斤으로 정점을 이루나 乾道2年(1166) 263,160斤으로 산출량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何堂坤, 『中國古代銅鏡的技術研究』(北京:紫禁城出版社, 1999), pp. 27-29.

¹⁸ 志第29 食貨3 錢弊 “初, 大定年間制, 民間應許存留銅鑄器物, 若申賣入官, 每斤給錢二百文, 其奉藏應禁器物, 首納者每斤給錢百文, 非器物銅貨一百五十文, 不及斤者計給之. 在都官局及外路造賣銅器價, 令運司佐貳檢校, 鏡每斤三百文.”

가 높은 가격에 동경을 매입하면서 구리 부족은 오히려 심화되었는데 동경을 정부에 팔아 이윤을 얻고자 민간에서 불법으로 동경을 제작하는 私鑄鏡의 확산으로 구리의 소비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金史』에 보면 大定年間(1161~1189) 私鑄鏡에 관한 금지령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특히 銅錢을 녹여 銅鏡을 만드는 불법 ‘銷錢鑄鏡’ 현상이 극성을 부려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다.¹⁹ 이를 위반할 경우, 사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었으나 민간의 ‘銷錢鑄鏡’ 현상은 계속되었다. 이를 규제할 수 없었던 金 정부는 결국 私鑄鏡의 생산을 금지하는 대신 1191년 동경의 매입가를 낮춰 불법 私鑄鏡의 양산을 완화할 수 있었다.

私鑄鏡의 성행은 금기야 銅鏡에 銘文을 새기는 제도까지 시행하게 했는데 이로 인해 현존하는 金鏡에 다수의 銘文이 남겨져 있다.²⁰ 명문은 〇〇縣, 〇〇州와 같은 地名이 있고 그 뒤에 官, 縣官, 驗記官과 같은 글자를 새긴 후 마지막에 상형문자와 같은 花押을 남겨 ‘〇〇지역에서 官인이 검사를 완료해 이에 서명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남아있는 명문 자료를 통해 大定10年(1170)에는 적어도 시행되어 泰和5年(1205)까지는 지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²¹ 명문이 金과 南宋의 최전방 교전지까지 남아있어 국경 지역까지도 시행되었을 정도였다.²²

2. 金鏡의 유입경로와 시기

이와 같은 배경에서 명문이 있는 40여 점의 금경이 개성을 중심으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특히 이 중 19점의 동경에는 구체적인 지명이 명문으로 남아있어 이를 행정구역에 따라 분류해보

¹⁹ 『金史』卷48, 志第29 食貨3 錢幣 “大定3年(1168), 民有犯銅禁者, 上曰: 銷錢作銅, 舊有禁令, 然民間猶有鑄鏡者, 非銷錢而何遂開禁之.” “大定11年(1171)二月, 禁私鑄銅鏡, 舊有銅器悉送官, 給其直之半.” “大定26年(1186)十一月, 上諭宰臣曰 國家銅禁久矣, 尚聞民私造腰帶及鏡, 託爲舊物, 公然市之, 宜加禁約.” “明昌2年(1191)十月, 勅減賣鏡價, 防私鑄銷錢也.”

²⁰ 金鏡의 銘文에 관한 연구는 遼寧省博物館, 『金代刻款銅鏡』(1996); 孔祥星·李雪梅, 「關於金代銅鏡上的檢驗刻記」, 『考古』(1992 第2期), pp. 170-174; 田華, 「金代銅鏡的刻款及相關問題」, 『北方文物』(1995年 第3期), pp. 59-62; A·J·伊夫里耶夫, 陳玉璇譯, 「關於中世紀銅鏡邊沿上的刻記」, 『北方文物』(1996年 第4期), pp. 106-109; 劉紹明, 「河南省南陽市博物館藏金代鑄款刻記銅鏡」, 『北方文物』(1997年 第4期), pp. 49-53 등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생산했거나 생산할 동경을 관부에 신고해 정부의 승인 즉 명문을 받아야만 매매 및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주조 활동을 막고자 했다.

²¹ “大定十年正月日信州武昌縣官記(花押)銘을 통해 大定10年(1170)에는 시행되었으며, ‘泰和五年錄事司官(花押) 徐州錄事司驗記(花押)銘이 새겨진 銅鏡을 통해 泰和5年(1205)까지는 검증제도가 지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旅順博物館, 『旅順博物館藏銅鏡』(北京: 文物出版社, 1997), p. 171; 上海博物館, 『隸紳神治寶質良工-上海博物館藏銅鏡精品』(上海: 上海書畫出版社, 2005), p.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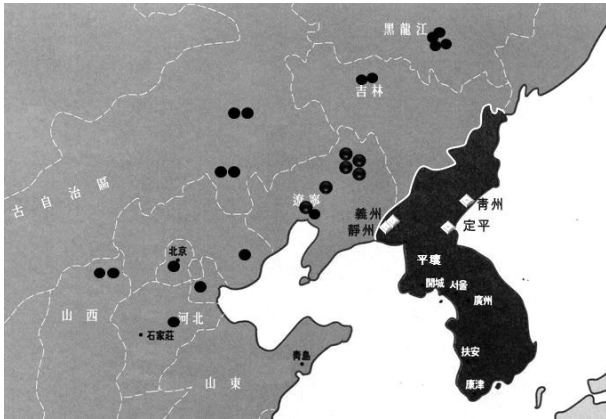
²² “內鄉縣官, ‘方城縣官銘이 새겨진 金鏡이 있다. 이들 지역은 지금의 南陽市 轄縣으로 宋과 金이 교전하였던 최전방으로 많은 전쟁이 발발했던 지역이었다. 劉紹明, 앞의 논문, pp. 49-53.

면, 金 이전부터 문화가 발달했었던 內蒙古, 河北, 山西 등지에서 검증을 거친 후 고려에 전해진 것으로 확인된다(표 2). 이 중에서도 黑龍江, 吉林, 遼寧에 속한 지역이 모두 11점을 차지해 고려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북지역을 통해 전래된 것이 많아 주목된다.²³

표 2 高麗에 전래된 金鏡의 地名

행정구역		銅 鏡	명 문	現 위치	크기(cm)	출토지	비고
黑龍江省	1	觀瀑紋鏡	金成官記匠	哈爾濱市 남쪽	9.7	개성부근	上京路
	2	花鳥紋柄鏡	金成花押		9.4/9.1	개성부근	
吉林省	3	海獸葡萄紋鏡	信州武昌縣花押	長春市 서남	13.3	개성부근	
	4	童子遊戲紋鏡	韓州主簿	四平市	16.7	개성부근	
遼寧省	5	卍字文鏡	威平府榮安縣 花押	開原 인근	16.5	고려고분	威平路
	6	四亭人物撫琴鏡	淸安令□		15.4	개성부근	
	7	素紋鏡	平郭縣官記		12.1	미상	
	8	素紋鏡	平郭縣官記		18.5	개성부근	
	9	素紋鏡	東京(巡)院匠	遼陽市	19.5	개성부근	東京路
	10	四團人物殿閣紋鏡	辰州建安縣, 盖州鑄字司	盖縣	24.7	개성부근	
11	湖州鏡	辰州建安縣本□, 湖州眞石家 念二叔照子	盖縣	11.4	개성부근		
天津市	12	許由巢父故事紋鏡	寶坻官□	天津市寶坻	14.5	개성부근	中都路
內蒙古	13	雙魚紋鏡	臨潢縣花押	赤峰市 巴林左旗	17.4	미상	臨潢府路
	14	連弧文明光鏡	北京驗記官花押	赤峰市寧城	9.8	고려고분	北京路
河北省	15	素紋鏡	平州遷安驗花押, 許	遷安	13.4	개성부근	中都路
	16	仙人龜鶴紋鏡	固安花押	固安	16.1	미상	
	17	葡萄唐草紋鏡	交河縣官	交河	6.3	개성부근	河北東路
山西省	18	加祿進官文鏡	西京記	大同市 인근	10	개성부근	西京路
	19	童子遊戲紋鏡	西京官記		12.1	개성부근	

²³ 이난영은 銘文이 있는 金鏡이 중국 遼寧, 吉林, 黑龍江 舊地가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난영, 앞의 책 (2003), pp. 106-109.



도 2 高麗에 전래된 金鏡의地名

요녕 일대는 금 정부를 대변했던 東京(현 요양)이 위치한 곳이자²⁴ 사무역이 왕성했던 압록강 주변의 義州, 靜州와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도 2).²⁵ 길림·흑룡강의 경우, 함경남도 德源을 경유하는 육로 또는 현재의 吐號浦를 떠나 동해안으로 들어오는 해로를 이용할 경우 고려로 쉽게 입항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통로는 일찍이 통일신라 때부터 사용되어 현재까지 이용되는 주요 항로 중 하나이다.²⁶ 또한 양국의 사무역이 진행되었던 동해안 인근의 定平, 靑州(지금의 북청)와도 쉽게 연결되기 때문에 흑룡강, 길림과의 교역도 원활히 이루어졌을 것이다.²⁷ 동북지역은 金에 들어와 경제 성장을 크게 이룩해 인구성장율이 명 이전까지 가장 높았고, 농업 생산 역시 비옥해 잉여 생산물을 남쪽 지방에 보낼 정도로 풍요로웠다. 또한 초기부터 金의 주요 집권층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었다.²⁸ 앞서 보았던 고려 동기도 이 곳에서 출토되어 당시 동북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19점의 동경 중에는 지명의 연혁을 통해 명문을 새긴 시기를 알 수 있는 예가 있어 주목된다. 金城, 平郭, 寶坻, 辰州銘의 7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1153년~1193년을 전후해 새롭게 설치되거나 없어진 곳들로 지명이 실제 사용되었던 시기를 알 수 있어 고려에 전해진 상한선

²⁴ 麗·金 間에는 東京報聘使라는 독특한 사행이 있었는데 東京의 官治를 맡았던 東京留守가 동북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 고려에 대한 외교권, 심지어 공략권까지 쥐고 있었다. 따라서 金 정부에 직접 알리기보다 東京에 전하기도 하였고, 東京留守 역시 고려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박한남, 『고려시대 외교문서에 나타난 민족문화의 전개』, 『韓國史의 國際環境과 民族文化』(경인문화사, 2003), pp. 64-76.

²⁵ 金鏡에 보이는 19개의 지명을 ●으로 표시했으며 사무역이 열렸던 義州, 靜州, 定平, 靑州의 위치를 알 수 있다.

²⁶ 통일신라-발해가 사용했던 新羅道는 경주까지 연결되었던 것으로 특히 해로를 이용한 양국의 왕래와 교통운수가 빈번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발해의 역사와 문화』(2007), pp. 231-232; 김은국, 『8~10세기 동아시아 속의 발해 교통로』, 『한국사학보』24 (2006), pp. 385-387.

²⁷ 실제 동해안에 있는 元興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랫동안 무역을 하다가 귀국했다는 사실도 문헌에 남아있어 동북지역과의 교역이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²⁸ 金熙宗(1135~1149) 때부터 북방지역의 경제상황은 날로 크게 발전하여 수십 개의 야철 유적과 대량의 철기가 黑龍江省 阿城縣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金의 인구 증가율 역시 東漢~明에 이르기까지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어 북방경제의 발전은 金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程民生, 『試論金元時期的北方經濟』, 『宋遼金元史』(2003年第3期), pp. 48-59.

을 설정해볼 수 있다.²⁹ 이로 볼 때 12세기 중반~13세기 초를 중심으로 고려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는 앞서 보았듯 양국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毅宗, 明宗年間(1146~1197)에 해당하며, 金에서는 동금제도가 시행되었던 大定年間(1161~1189)을 포함해 동경의 생산이 왕성했던 때이자 문화의 절정기로 양국의 교류를 통해 金鏡이 고려로 유입되기에 충분했던 상황이었다.³⁰

3. 金鏡의 문양별 종류와 특징

개성을 중심으로 출토된 金鏡은 12세기에 들어와 당시 발달했던 교통로를 따라 양국의 교류를 통해 고려에 전해진 것이었다. 이와 같은 금경의 뒷면에는 다양한 문양이 장식되어 이를 살펴보면 고려에 전해진 금경의 종류와 특징을 알 수 있다. 문양에 따라 크게 人物故事文鏡, 倣古鏡, 기타 동경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표 3).

먼저, 人物故事文鏡이다. 許由巢父故事文鏡이나 稽康學琴故事文鏡과 같이 고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부터(도 3~도 4)³¹ 仙人이 나무 아래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동자에게 團扇을 주는 모습, 폭포를 바라보는 모습, 거북이나 학과 함께 있는 등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주로 신선, 도가



도 3 〈許由巢父故事文鏡〉 '寶坻官口' 金, 개성 출토, 지름 14.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4 〈稽康學琴故事文鏡〉 '眞正官花押' 金, 개성 출토, 지름 13.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적인 주제를 표현한 다양한 예들을 살필 수 있다(도 5~도 7). 이러한 人物故事文鏡은 金을 대표하는 문양으로 北宋 晩期에 일부 사용되었으나 金으로 넘어와 더욱 다채로운 제재와 구도로 제작해 金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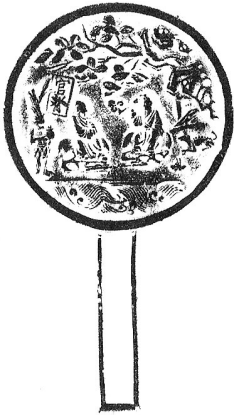
²⁹ 金城은 1153~1173년, 平郭은 1167년 이후, 寶坻는 1172년 이후, 辰州는 1193년 이후에 새롭게 설치된 지역이다. 拙稿, 『金系高麗銅鏡研究(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08), pp. 26~28.

³⁰ 金은 초기인 天會年間(1123~1137)부터 이미 銅鏡을 사용하였던 기록이 남아있고, 熙宗(1135~1149) 때부터 독자적인 동경이 제작되기 시작해 중기인 大定年間(1161~1189)을 넘어오면서 발굴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다. 大定年間 이후에는 가장 완성되고 풍부한 金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王禹浪, 李臣奇, 앞의 논문(1988), pp. 367~368.

³¹ 許由巢父故事文鏡은 자연 속에 살고자 하는 두 隱士의 절개와 지조를 주제로 한 고사로 고려, 조선의 문학에서도 자주 인용된 제재였다. 稽康學琴故事文鏡 역시 죽림칠현 중 하나인 稽康이 유랑하다 선인을 만나 音律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거문고를 배웠다는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삼았다.

표 3 高麗에 전래된 金鏡의 銘文

분류	銅鏡	銘文	크기(cm)	출토지	비고		
人物故事文鏡	1	稽康學琴故事文鏡	眞正□事官□	13.2	개성부근	덕2592	
	2	許由巢父故事文鏡	寶坻官□	14.5	개성부근	덕686	
	3	人物故事文鏡	官花押	12.7	개성부근	덕6714	
	4		銅院花押	8.4/7.0	경남 하동군 화개면	본5168	
	5	童子遊戯文鏡	□谷□住花押	14.1	개성부근	덕2952	
	6		都右院官	14.2	미상	동원1811	
	7		西京官記	12.1	개성부근	본4325	
	8		韓州主簿	16.7	개성부근	덕4902	
	9	觀瀑文鏡	金成官記匠	9.7	개성부근	덕1404	
	10	四團人物殿閣文鏡	辰州建安縣、 盖州壽字司	24.7	개성부근	덕1711	
	11	四團人物文鏡	清安令□	15.4	개성부근	덕1323	
	12	波上人物文鏡	都右院官	14.2	미상	증5469	
	13	仙人龜鶴文鏡	固安花押	16.1	미상	본9128	
倣古鏡	漢式	14	青蓋銘鏡	奉聖州錄事司官花押	11.2	개성부근	덕182
		15	連弧紋明光鏡	北京驗記官花押	9.8	고려고분	본2593
	唐式	16	海獸葡萄文鏡	鏡子	13.5	고려고분	본12407
		17		信州武昌縣花押	13.3	개성부근	덕5502
		18		荊家庄毛克官記	13.3	개성부근	덕5997
		19	瑞獸文鏡	官花押	10.3	고려고분	본2270
		20			10.1	고려고분	본2746
		21			10.3	미상	본9539
		22			9.7	개성부근	덕895
		23			四神文鏡	都右院官	15.8
기타	動物	24	龍文鏡	판독불가	9.3	개성부근	덕3299
		25	龍鳳文鏡	官花押	7.1	미상	본2768
		26	雙魚文鏡	臨潢縣花押	17.4	미상	덕1817
		27	寶相花文鏡	秦仙官花押	16	개성부근	덕373
	植物	28	葡萄唐草文鏡	交河縣官	6.3	개성부근	덕427
		29	靈樹園巨文鏡	官花押	25.6	개성부근	덕1873
		30	走馬葡萄文鏡	洛□官匠□□	8.5	고려고분	본7894
	複合	31	花鳥文柄鏡	金成花押	9.4/9.1	개성부근	덕5334
		32	壽山福海文鏡	左巡院驗記官花押	16.3	개성부근	덕57
	文字	33	八卦文鏡	河縣記官花押	13.3	개성부근	덕2585
		34	加祿進官文鏡	西京記	10	개성부근	덕2373
		35	卍字文鏡	威平府榮安縣花押	16.5	개성부근	본2734
		36	湖州鏡	辰州建安縣本□	11.4	개성부근	본298
		37	湖州柄鏡	官花押	6.5/6.1	개성부근	덕서4618
38		女眞文字鏡		15.7	미상	덕287	
기타		39	素文鏡	東京(巡)院匠	19.2	개성부근	덕2875
	40	平郭縣官記		12.1	미상	덕5072	
	41	平郭縣官記		18.5	개성부근	덕5503	
	42	平州遷安驗花押, 許		13.4	개성부근	덕5796	



도5 〈仙人故事文鏡〉‘官(花押), 金, 고려고분出土, 지름 12.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6 〈人物故事文鏡〉銅院(花押), 金, 경남 하동군 화개면出土, 지름 8.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7 〈觀瀑文鏡〉‘金成官記匠’, 金, 개성出土, 지름 9.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하였다.³² 金は 북송의 文化를 적극 수용하는 漢化 정책을 실시해 北宋 壁畫에서 볼 수 있었던 孝子故事를 24개의 세트로 완성하거나 다양한 인물고사와 함께 雜劇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한 장식과 벽화가 제작되었다.³³

두 번째는 漢이나 唐鏡을 모방해 만든 倣古鏡이다.³⁴ 漢鏡을 본 倣漢鏡에는 靑蓋銘鏡, 連弧文明光鏡이 있으며, 倣唐鏡에는 瑞獸文鏡과 海獸葡萄文鏡이 있다.³⁵ 靑蓋銘鏡은 金에서 특히 유행했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성부근에서 여러 점이 출토되었다(도 8).³⁶ 瑞獸文鏡은

³² 최근 宋, 遼, 金의 유적이 차차 발굴되고 동경이 수집되면서 각 시대의 독자적인 특징이 밝혀졌는데, 金은 北宋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이전과는 구별되는 동경들이 제작되었다. 출토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12세기 초반인 北宋 晩期(1101~1127)에 들어와 다양한 동경들이 출토되었고, 그 중 人物故事文鏡과 같은 특정 종류가 金에 들어와 더욱 다채로운 소재와 새로운 구도로 발전하였다. 宋, 金鏡에 관한 참고문헌에 관해서는 拙稿, 앞의 논문, pp. 40-41 참조.

³³ 지민경, 『北宋 金代 裝飾古墳의 소개와 기초분석』, 『미술사논단』33(2011), pp. 203-231; Jeehee Hong, “Virtual Theater of the Dead: Actor Figurines and Their Stage in Houma Tomb No.1, Shanxi Province”, *Artibus Asiae* Vol. 71, No.1 (2011), pp. 75-114.

³⁴ 金의 倣古鏡은 倣漢鏡, 倣唐鏡, 倣宋鏡으로 나눌 수 있는데 倣漢鏡은 宋보다 더 다양화되었다. 李縉云, 『中國古代銅鏡中倣制鏡的辨偽』, 『故宮所藏你應該知道的200件銅鏡』(北京:紫禁城出版社, 2007), pp. 308-311. 이 외에도 家常貴富文鏡, 四乳四獸文鏡, 天王日月神獸文鏡 등의 다양한 倣古鏡을 살필 수 있다. 자세한 것은 拙稿, 앞의 논문 (2008), pp. 49-56 참조.

³⁵ (표 3)에서 14~22번이 해당한다.

³⁶ 靑蓋銘鏡은 ‘靑蓋作鏡自有紀辟去不羊宜古市長保二親利孫子無吏高官壽命久’의 명문대를 통해 붙여진 명칭이다. 12세기 중·후반 이후 조성된 黑龍江, 吉林의 금대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元代 유적까지도 발견되어 사용시기가 길었던 것이 확인된다. 발굴지역과 보고서는 拙稿, 앞의 논문, pp. 50-51 참조.



도8 〈青蓋銘鏡〉‘奉聖州錄事司官(花押)’, 金, 지름 11.2cm, 고려고분 出土,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9 〈瑞獸文鏡〉‘官(花押)’, 金, 개성 出土, 지름 10.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일한 동물이 입을 벌리거나 뒤를 돌아보는 자세로 손잡이 주변을 따라 원형구도로 배치되었다 (도9). 官(花押)이 양각으로 명확한 것에서 흐릿한 것까지 다양하다. 海獸葡萄文鏡은 宋, 遼에서도 꾸준히 방제되었지만 金에 들어와 크게 성행해 고려경으로도 9~20cm 내외의 크기가 다양한 예를 살필 수 있다.³⁷ 이 외에도 구조상태가 좋지 못한 다양한 倣古鏡들이 金鏡과 高麗鏡으로 남아 있어 양국의 공통된 특징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방고경에 관해 『金史』에서는 銅鏡을 오래된 기물로 속여 매매하므로 이에 대한 금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³⁸ 당시 동금정책이 시행되었던 시기로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민간에서 私鑄한 倣古鏡을 옛날 기물로 속여 시장에 내다팔았던 것으로 이해



도10 〈雙魚文鏡〉‘臨潢縣(花押)’, 金, 지름 17.4cm,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도11 〈童子遊戲文鏡〉‘都右院官’, 金, 지름 14.2cm,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된다. 이는 倣古鏡의 종류와 수량이 급증했던 金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동금정책을 악용해 동경매매로 수익을 얻으려 했던 金人들이 시도했던 방법이었다.³⁹

이 외 동물, 식물, 문자 등으로 장식된 기타의 동

³⁷ 이난영, 앞의 책 (2003), pp. 143-148, 282-283.

³⁸ 『金史』卷48, 志第29 食貨3 錢幣 “大定26年(1186)十一月, 上諭宰臣曰 國家銅禁久矣, 尙聞民私造腰帶及鏡, 託爲舊物, 公然市之, 宜加禁約.”

³⁹ 倣古鏡의 증가는 당시 倣古器物을 애호했던 경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신숙, 「고려 공예품에 보이는宋代 ‘倣古器物’의 영향」, 『美術史研究』Vol.25(2011), pp. 161-184; 이용진, 「高麗時代 鼎形青磁 研究」, 『美術史學研究』252(2007), pp. 159-160.

경들이다.⁴⁰ 雙魚文鏡은 金 上京 유적에서만 백여 점이 출토되었을 정도로 성행했던 동경이며(도 10), 童子遊戲文鏡은 연꽃이나 포도송이를 넣은 다채로운 유형이 제작된 예이다(도 11). 특히 두 동경은 金에서 매우 성행했던 문양으로 여러 유형이 제작되었으며 黑龍江, 吉林, 河北을 중심으로 출토되었다.⁴¹ 이외에도 명문은 없지만 春書, 사냥, 민속풍습과 같은 현실 생활을 제재로 한 새로운 문양이 金에서 제작되었고 이러한 예는 高麗鏡으로도 남아있다.⁴² 이러한 金鏡의 특징은 南宋鏡과도 구별되는데 理宗年間(1224~1264)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양이 남송 때 제작되기도 했지만(도 12)⁴³ 12세기 초부터 성행했던 湖州鏡의 전통을 이어 문양없이 실용성을 중시하는 浙江 일대의 商業鏡이 주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⁴⁴



도 12 <雙龍文鏡> 嘉熙元年正月張子衡, 南宋 1237年, 지름 11.5cm. 北京 故宮博物院 소장.

IV. 金의 영향과 金系 高麗鏡의 유통

1. 金鏡의 수용과 영향

지금까지 金鏡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人物故事文鏡, 做古鏡 등의 다양한 종류가 고려

⁴⁰ (표 3)에서 23~42번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⁴¹ 雙魚文鏡과 童子遊戲文鏡은 네 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雙魚文鏡의 경우, 金鏡의 대표적인 문양으로 金 上京 유적에서 43cm에 이르는 대형의 銅鏡도 출토된 바 있으며, 童子遊戲文鏡은 金 上京 白城遺蹟, 吉林 德惠 后城子古城, 河北 承德縣 등의 유적을 중심으로 출토되었다. 李秀蓮, 『談論金代魚紋銅鏡』, 『黑龍江農墾師專學報』(2000年 第2期), pp. 7-9; 劉林, 『河北省承德縣發現金元時期窖藏』, 『北方文物』(1996年 第2期); 王春雷, 『金上鏡博物館館藏宋金人物紋飾銅鏡』, 『北方文物』(2003年 第1期) pp.45-47. 童子遊戲文鏡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월칠석이 되면 아이들이 연꽃이나 식물을 들고 뛰어노는 민속풍습을 형상화한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Ellen Johnston, Laing, "Chin Tartar Dynasty (1115-1234) Material Culture", Artibus Asiae Vol. 49, No.1/2 (1988-1989), pp. 73-126.

⁴² 姜宏宇, 『金代銅鏡紋飾之文化習俗考』, 『哈爾濱學院學報』(2006年 第5期), pp. 31-35; 裴淑蘭, 李熙敦 譯, 『歷代銅鏡紋飾』, 『清溪史學』제16·17집 (2002), pp. 55-73; 張英, 『吉林出土銅鏡』(北京:文物出版社, 1990), pp. 1~10. 고려경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덕2519, 본246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난영, 앞의 책 (2003), p. 196.

⁴³ 陳章龍, 앞의 논문, pp. 58-59.

⁴⁴ 北宋 晩期인 12세기 초부터 제작되었던 湖州鏡은 별다른 문양 없이 方形의 틀 안에 州名, 工匠姓氏, 作業場의 위치를 담은 商業鏡으로 12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전반의 南宋墓에서 출토되는 양상이다. 湖州鏡은 饒州鏡, 蘇州鏡, 杭州鏡 등과 함께 가장 크게 성행했던 商業鏡 중 하나이다. 王士倫, 『浙江出土銅鏡』(北京:文物出版社, 2006), pp. 32-38.

에 전래되었고, 현존하는 高麗鏡에 金系 양식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인물고사문경이 고려에 성행했던 것을 알 수 있어 주목된다.⁴⁵ 高麗에 유입된 金鏡 중에는 앞서 보았듯 죽림칠현을 소재로 한 稽康學琴故事文鏡이나 東海眞仙을 표현했다는 祝壽人物故事文鏡 그리고 다리를 건너 仙境의 세계로 들어가는 人物殿閣文鏡과 仙人龜鶴文鏡, 자연을 벗 삼아 유유자적하는 삶을 담은 觀瀑文鏡이나 許由巢父故事文鏡과 같은 예를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용왕의 딸을 도와주고 결혼해 신선이 되었다는 柳毅傳書故事文鏡이나 吳牛喘月故事文鏡이 고려경으로 다수 남아있는데 이러한 동경은 金에서 성행했던 故事文鏡이다.

이러한 金系 人物故事文鏡은 주로 신선사상이나 도가적인 주제를 표현하였다. 동경에 표현된 인물은 주로 폭넓은 장삼을 입고 있거나 머리에 높은 보관을 쓴 채 높은 산봉우리와 물, 교각을 이용해 현실세계로부터 단절된 공간 안에 거문고를 연주하거나 신령한 동물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신선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주제는 高麗鏡 뿐 아니라 고려 상형청자로 제작된 예가 있고, 현존하지는 않지만 이인노가 쓴 회화의 화제로도 남아있어 동시기 고려 미술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제였다.⁴⁶

당시 신선 및 도가적인 제재가 미술품에 등장한 배경에는 12세기 도교의 성행과 함께 무신의 난 이후 문인들이 집권세력에서 물러나 산 속에서 도교 양생법을 실천하며 신선이 되고자 했고, 죽림칠현을 결성해 도가적인 삶을 실천했던 시대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⁴⁷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金의 인물고사문경이 소비될 수 있었고, 金鏡을 재주하거나 방제한 금계 고려경이 다수 제작될 수 있었다.

인물고사문경은 주제와 걸맞게 폭포, 누각, 암석, 나무 등을 이용해 회화적인 화면으로 구성되었다. 근경과 원경을 살린 화면 구성 속에 이야기를 전개하거나 여러 유형의 나무들이 左, 中, 右로 자유롭게 배치되어 화면 상단을 향해 펼쳐지는 회화적인 구도가 특징적이다(표 4). 이러한 특징은 최근 중국에서 출토된 금경에서도 확인되는데 두 그루의 나무가 양 끝에 있고, 가운데 높은

⁴⁵ 현존하는 高麗鏡 1,248 점을 문양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植物文系(18.8%), 人物畫像·故事文鏡系(13.1%), 素文鏡系(11.2%), 花鳥文系(11.6%), 漢鏡系(10.3%), 龍文系(9.9%), 文字文系(7.3%), 瑞獸文系(7.0%), 湖州鏡系(4.5%), 鳳凰文系(3.4%), 魚文系(1.8%), 鏡像(1.0%)순으로 나타났다. 고유민, 앞의 논문, pp. 34-35. 금계뿐 아니라 고려경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이나 고려인이 선호했던 주제인 것은 알 수 있다.

⁴⁶ 도교적인 소재의 상형청자는 12세기 도교의 성행기와 일치하며 宋과는 다른 고려의 미감에 의해 제작된 소비기호로 해석되었다. 김윤정, 『高麗末·朝鮮初 銘文靑瓷 研究』(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1); 백은경, 『高麗 象形靑磁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pp. 85-88; 박은순, 「고려시대 회화의 대외교섭 양상-〈春庭觀畫圖〉, 〈秋庭書扇圖〉를 중심으로」, 『高麗美術의 對外交涉』(예경, 2004), pp. 10-44.

⁴⁷ 金澈雄, 「高麗中期 道教의 盛行과 그 性格」, 『史學志』28 (1995), pp.97-133; 金洛必外, 「高麗中期 道教의 綜合的 研究」, 『韓國學論集』15 (1989), pp. 43-124.

표 4 금계 고려경의 회화적인 화면구성



도 13 〈人物殿堂文鏡〉金, 北京 懷柔出土, 지름 29.5cm, 北京 遼金城垣博物館 소장.



도 14 〈人物殿堂文鏡〉高麗, 개성出土, 지름 20.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5 〈龍樹殿閣文鏡〉高麗, 慶南 密陽 茶竹里 遺蹟 出土, 지름 21.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6 〈人物殿閣紋鏡〉高麗, 개성 出土, 지름 17.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누각을 배치한 채 다양한 인물과 정물을 한 폭의 그림처럼 제작된 예를 살필수 있다(도 13). 이와 같은 예는 고려경으로도 남아있는데 동일하지는 않지만 당시 신선, 도가적인 주제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동경이 제작되는 경향이였다(도 14).

이러한 특징은 고려를 대표하는 용수전각문경과 유사해 주목된다(도 15). 관복을 입은 사람이 지물을 들고 앞서가는 사람에게 인도되어 반대편에 위치한 선계를 향해 다리를 건너는 모습은 앞서 본 주제와 같고,⁴⁸ 오른쪽에 배치된 나무가 유려하게 뺀어 상단을 채우는 회화적인 구도를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용수전각문경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에는 인물전각문경이 있다(도 16). 지금까지

⁴⁸ 龍樹殿閣文鏡은 중국 고대의 月中有兔, 月中蟾蜍 신화와 西王母, 羿의 신화가 결합된 姮娥奔月을 제재로 한 月宮鏡에 唐 玄宗의 遊月宮故事가 혼합된 것으로 전각, 다리를 건너는 인물 등이 첨가된 도상으로 해석되었다. 고유민, 앞의 논문, pp. 39-45.

의 출토자료를 통해 12세기를 전후해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⁹ 용수전각문경과 비교해보면, 동일한 소재와 주제를 표현했지만 용수전각문경이 여백을 살려 더욱 회화적으로 제작된 느낌을 준다.

金の 인물고사문경이 개성 중심으로 소비되었고 이를 모방하거나 방제했던 금계 고려경이 활발히 제작되었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용수전각문경은 金鏡의 회화적인 양식과 특징을 완전히 흡수했던 고려 장인이 용, 구름 속에 탄 인물, 토끼와 두꺼비를 새롭게 넣어 제작한 고려만의 인물고사문경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성과를 통해 龍樹殿閣文鏡은 11세기 후반 이후 제작되어 12세기에 들어와 크기가 더욱 작고 간략해지는 두 가지의 유형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⁰ 현재까지 龍樹殿閣文鏡의 편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慶南 密陽 茶竹里로 靑磁象嵌菊花紋小壺, 靑磁壓出陽刻大樸, 燕尾形銅匙, 銅鉢과 함께 발견되어 12세기 후반~13세기 초로 편년해 볼 수 있다.⁵¹ 용수전각문경을 비롯해 고사문경에서 볼 수 있었던 회화적인 도안은 다른 금속기에서도 확인되는데 銀製鍍金神仙文香盒, 金屬裝身具에서도 유사한 주제와 표현을 볼 수 있어 동일한 외형을 가진 원형의 금속기와 영향관계가 있다(도 17~도 18).



도 17 〈銀製鍍金打出神仙文香盒〉高麗, 지름 5.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8 〈靑銅十二支人物文裝身具〉高麗, 지름 5.2cm, 파리 국립기메 동양박물관 소장.

⁴⁹ 人物殿閣文鏡은 12세기 초 중국 湖北 襄陽 崇寧3年(1104), 安徽 合肥市 郊區 政和年間(1111~1118)의 北宋墓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 이외 다수의 동경이 金鏡으로 남아있어 12세기를 중심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성에서 출토된 인물전각문경의 경우, 외형을 따라 雙雲을 둘러 장식했는데 이와 같은 장식은 金鏡에서 즐겨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이로 볼 때 고려의 인물전각문경은 12세기에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⁵⁰ 대체적으로 龍樹殿閣文鏡은 11세기 후반에는 적어도 제작되었으며 좀 더 간략한 유형은 12세기 중엽 이후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이난영, 앞의 책(2003), p. 319; 고유민, 앞의 논문, pp. 16~17; 황정숙, 앞의 논문, pp. 128~129.

⁵¹ 李雲成, 『密陽茶竹里 出土遺物』, 『考古美術』第9卷(1968), p. 11;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重要發見埋藏文化財圖錄』第I輯(1989), p. 366. 이 외에도 용수전각문경은 京畿道 安城 東恒里, 慶北 聞慶 虎溪里에서 토기, 수지와 함께 출토되었으나 정확한 편년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2. 高麗鏡의 製作과 流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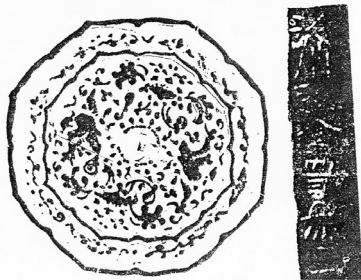
12세기 이후 금과의 교류 속에 다채로워진 고려경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출토되어 주목된다. 특히 고려의 용수전각문경이 중국 黑龍江 哈爾濱市에서 출토되었는데(도 19)



도 19 <龍樹殿閣文鏡> 高麗, 黑龍江省 哈爾濱市 出土, 지름 21.1cm, 중국 개인소장.

密陽 茶竹里와 크기 및 형태가 유사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보았던 금과의 교역상황과 고려에서 생산되고 사용되었던 금계 동경을 고려해볼 때 12세기~13세기를 중심으로 교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고려에서 크게 성행했던 瑞花雙鳥文鏡이 중국 吉林 農安에서도 출토되었다(도 20).⁵² 瑞花雙鳥文鏡은 우리나라, 일본을 중심으로 제작되어 중국에서는 찾기 어려운 예로 알려져 있다.⁵³ 그간 다수의 예가 고려고분에서 출토되어 새, 식물의 표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⁵⁴ 그 중에서도 12세기 이후로 볼 수 있는 청주 금천동, 단양 현곡리, 화



도 20 <瑞花雙鳥文鏡> '濟州縣令賣(花押)', 吉林省 農安 出土, 지름 11.5cm, 長春市 文晝會 소장.

성 향남면 석곽묘의 유형과 양식적으로 가장 유사하다. 또한 吉林 農安의 동경에는 '濟州縣令賣(花押)銘이 있어 1189년 이후에나 濟州 縣令이 동경을 구입해 명문을 남겼던 것으로 볼 수 있어⁵⁵ 12세기 후반 이후 고려에서 수입했거나 金에서 高麗鏡을 모방해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두 점에 불과하지만 高麗鏡이 金과 교역했던 사실을 보여주며 두 점 역시 동북지역에서 발견되었다.

고려경의 유통은 보다 많은 수량이 확인되는 일

⁵² 劉紅宇, 「吉林農安出土金代“濟州縣令賣”銅鏡」, 『文物』318 (1982), p. 48.

⁵³ 이난영은 唐鏡의 하나인 唐花雙鸞鏡에서 변화한 것으로 日本과 高麗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이난영, 앞의 책 (2003), p. 141; 杉山洋, 「今様の鏡と古林の鏡-出土八稜鏡より見た平安時代の鏡-」, 『museum』481 (1991), pp. 4-21; 久保智康, 「朝鮮半島における日本系銅鏡」, 『韓半島考古學論叢』(東京: ずさざわ書店, 2002), pp. 577-605; 廣瀬都哭, 『和鏡』(京都: 京都國立博物館藏, 1997), pp. 64-77.

⁵⁴ 龍仁 佐恒里, 淸州 金川洞, 忠州 虎岩洞 등 대표적인 高麗 古墳에서 18점의 동경이 출토되었다. 중국 길림에서 출토된 동경은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도 청주 금천동 II-1-62호 토광묘, 단양 현곡리 24호 돌덧널무덤, 화성 향남면 1지점 석곽묘에서 출토된 예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⁵⁵ 濟州가 1189년 隆州로 개명된 연혁이 있어 1189년에는 적어도 濟州 縣令이 동경을 구입해 명문을 남겼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을 통해 파악된다. 고려의 龍樹殿閣文鏡, 瑞花雙鳥文鏡을 비롯해 金系 銅鏡인 柳毅傳書故事文鏡, 煌丕昌天銘鏡과 같은 다수의 고려경이 일본 해안에 위치한 신사를 중심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⁵⁶ 이에 관해 주목되는 점은 고려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煌丕昌天銘鏡의 유통문제이다(도 21).



도 21 <煌丕昌天銘鏡> 高麗, 지름 18.3cm, 호암미술관 소장.



도 22 <日月煌丕昌天銘鏡> 高麗, 지름 24.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국, 일본을 포함해 대다수의 수량이 우리나라에 남아있어 고려경으로 줄곧 논의가 있어왔던 동경이다.⁵⁷ 한척의 배가 여러 사람을 싣고 높은 풍랑 속에 돛을 휘날리며 항해 중인 모습인데 이러한 航海文이 동경의 제재로 시작된 것은 북송 때부터로 四川 雅安 宋墓에서 출토된 예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황비창천명경과 비교해보면 명문이 없고 돛의 형태, 구도가 다르지만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러한 항해문경은 12세기에 들어와 金에 의해 더욱 다양해지는데 煌丕昌天, 天下第一 등 명문을 넣은 동경들이 제작되었다.⁵⁸

金의 황비창천명경은 오히려 고려에서 크게 성행하였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수량이 많고, 크기가 16~18cm 내외로 구조상태가 좋은 것부터 문양이 얇고 흐린 것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고려는 용수전각문경처럼 고려만의 항해문경을 제작하였다. 고려 청자나 비석에서 볼 수 있는 日月의 도상인 삼족오와 계수나무 아래 절구짚는 토끼를 상단에 배치해 차분한 파도물결 속에 한가롭게 노를 짓는 모습의 日月煌丕昌天銘鏡이 새롭게 창안되었다(도 22).

이로 볼 때 고려는 人物殿閣文鏡, 煌丕昌天銘鏡을 비롯한 다양한 金鏡을 수입하면서 이를 그대로 再鑄하거나 倣製할 뿐 아니라, 日月煌丕昌天銘鏡, 龍樹殿閣文鏡과 같은

⁵⁶ 이승란, 「北九州 출토 고려 공예품으로 본 한일 교섭」,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靜齋 金理那 教授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예경, 2007), pp. 323-343; 国立歴史民俗博物館編, 『東アジア中世海道: 海商・港・沈没船』(東京: 毎日新聞社, 2005).

⁵⁷ 고려경에는 일월도상을 첨가해 크기를 25cm 정도로 크게 제작한 2식도 있는데 이에 대해 高西省은 1식은 北宋 또는 金鏡으로, 2식은 高麗鏡으로 보았으며, 이난영은 1, 2식 모두 高麗鏡으로 추정하여 1식의 경우 고려에서 금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高西省, 윤보경 譯, 『韓中 양국 출토 航海圖紋銅鏡 考察』, 『미술자료』 63호(1999), pp. 33-46; 이난영, 앞의 책(2003), p. 326; 황정숙, 앞의 논문, pp. 118-128.

⁵⁸ 황비창천명경은 黑龍江 阿城市, 吉林 前郭 金墓에서 '上京警巡院銘의 예가 출토된 바 있으며, 『臨洮府錄事司驗記官을 세긴 것도 전해진다. 孔祥星, 劉一曼, 위의 책, pp. 848-853; 張雪巖, 「吉林集安出土的銅鏡」, 『文物』 第6期(1986), pp. 93-96; 李彩萍, 『呼和浩特市博物館藏銅鏡淺論』, 『內蒙古文物考古』(1995年 第1期), pp. 32-36; 張英, 앞의 책(1990), p. 95.

고려 만의 양식으로 동경을 제작해 이를 다시 金, 日本과 유통했던 것이다.⁵⁹ 고려경의 유통에 있어 앞서 본 金의 구리부족은 고려경을 교역할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金에서는 동금정책으로 민간에서 銅鏡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을 뿐 아니라 고려 銅器의 가치도 높았던 상황이었다. 당시 南宋에서 100~200枚에 팔리던 湖州鏡이 金에서는 150~300枚에 팔렸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⁶⁰ 이로 보아 金과의 교류에서 高麗는 銅器와 함께 銅鏡 역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교역품으로 당시 활발했던 金과의 교역을 통해 유통했던 것이다.⁶¹

V. 맺음말

지금까지 개성을 중심으로 출토된 金鏡을 통해 고려 미술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2~13세기 고려경의 제작 양상과 유통 상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金鏡의 銘文을 통해 12세기 전반부터 양국의 교역이 서서히 시작되면서 이후 12세기 중반~13세기 초를 중심으로 金鏡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여러 지역을 통해 金鏡이 들어왔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북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지역은 高麗 銅器, 銅鏡이 출토된 곳으로 당시 발달했던 교통로를 이용할 경우 사무역이 활발했던 압록강, 동해안 지역과 쉽게 교역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

둘째, 金鏡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人物故事文鏡이 고려에서 특히 성행하였다. 인물 고사문경의 신선 및 도가적인 주제는 12~13세기 고려의 시대미감으로 金鏡을 수입해 모방하거나 방제한 金系 高麗鏡들이 활발히 제작되었다. 이러한 금계 고려경은 전각, 나무, 암석 등을 이용한 회화적인 구도와 도안으로 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일부의 高麗 金屬器에서 유사한 표현 및 주제를 볼 수 있어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龍樹殿閣文鏡, 日月煌丕昌天銘鏡은 12세기 외래경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고려가 새롭게 창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金의 銅禁政策은 양국의 동경 생산과 유통을 활발히 해준 원동력이었다. 동금정책으로 인해 倣古鏡을 비롯한 다양한 문양과 함께 私鑄鏡이 성행했고 이는 양국의 동일한 경향으로

⁵⁹ 안경숙 역시 高麗鏡이 교역품이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안경숙, 앞의 논문, pp. 267-268.

⁶⁰ 王士倫, 앞의 책, pp. 32-38.

⁶¹ 高麗鏡의 교역은 13세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13세기 후반 元의 조정이나 15세기 초반 明 使臣들에 의해 꾸준히 요청받았다.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1年 6月 己酉 “元遣李熙載來詔曰 除法物鐘磬銅鏡古銅瓶鼎熟銅器物外其餘應有銅錢生銅器物以聖旨到限百日悉納所在官 尋命停罷.”; 『世宗實錄』卷8, 2年(1420) 4月 10日 “使臣請以納子換紬布, 又請銅鏡, 竝從所求.”

확인되었다. 銅이 부족했던 金의 상황은 高麗 銅器를 일찍부터 수출해왔던 고려에게 영향을 주었고, 金과의 교역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었던 銅鏡을 고려가 교역대상으로 삼아 유통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12~13세기 시대상황 속에 高麗鏡이 제작되고 유통되었던 측면을 고찰하였다. 고려경이 이전시기에 비해 막대한 양으로 증가한 이유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고려경의 다양한 도상을 시기별로 분석해본다면 고려경이 동아시아 교역에서 갖는 위치와 성격이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 동경(銅鏡, bronze mirror), 동기(銅器, copper artifact), 금나라(金, Jin(Geum)), 교역(交易, trade), 용수전각문경(龍樹殿閣文鏡, Mirror of the Dragon, Tree and Pavilio), 황비창천명경(皇丕昌天銘鏡, Mirror of the Superbly Dazzling and Flourishing Sky), 금속 공예(金屬工藝, metal craft)

■ 투고일 2013년 5월 21일 | 심사개시일 2013년 7월 24일 | 심사완료일 2013년 10월 22일 ■

참고문헌

1. 史料

『金史』

『高麗史』

『唐會要』

『舊五代史』

『宋史』

2. 圖錄 및 調查報告書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동경-거울에 담긴 고려 사람들의 삶』, 2010.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重要發見埋藏文化財圖錄』第1輯, 1989.

정신문화연구원, 『韓國의 銅鏡』, 1984.

충청문화재단연구원, 『舒川 楸洞里 遺蹟(I地區)』, 2006.

遼寧省博物館, 『金代刻款銅鏡』, 1996.

旅順博物館, 『旅順博物館藏銅鏡』, 北京: 文物出版社, 1997.

上海博物館, 『練形神治寶質良工-上海博物館藏銅鏡精品』, 上海: 上海書畫出版社, 2005.

張英, 『吉林出土銅鏡』, 北京: 文物出版社, 1990.

王士倫, 『浙江出土銅鏡』, 北京: 文物出版社, 2006.

國立歷史民俗博物館編, 『東アシア中世海道: 海商·港·沈没船』, 東京: 毎日新聞社, 2005.

京都國立博物館, 『和鏡: 京都國立博物館藏』, 1997.

孔祥星·劉一曼, 『中國銅鏡圖典』, 北京: 文物出版社, 1997.

王士倫, 『浙江出土銅鏡』, 北京: 文物出版社, 2006.

黃啓善, 『廣西銅鏡』, 北京: 文物出版社, 2004.

3. 單行本

李蘭暎, 『高麗鏡 研究』, 신유출판사, 2003.

李東馥, 『東北亞細亞史研究-金代女眞社會의 構成』, 一潮閣, 1986.

金渭顯, 『高麗時代對外關係史 研究』, 경인문화사, 2004.

何堂坤, 『中國古代銅鏡의 技術研究』, 北京: 紫禁城出版社, 1999.

孔祥星·劉一曼, 安京淑譯, 『中國古代銅鏡』, 주류성, 2003.

- 金渭顯, 『遼金史研究』, 裕豊出版社, 1996.
- 김인철, 『고려무덤 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 2003.
- 張東翼, 『宋代麗史資料輯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한국미술사학회, 『高麗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4.
- 황호근, 『韓國紋樣史: 高麗銅鏡에 나타난 紋樣을 중심으로』, 1978.
- 홍희유, 『조선상업사 고대·중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4. 論文

- 강신영, 「8~9세기 東아시아의 銅器交易과 張保臯」,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高西省, 윤보경 譯, 「韓中 양국 출토 航海圖紋銅鏡 考察」, 『미술자료』63호, 국립중앙박물관, 1999.
- 고유민, 「高麗 ‘龍樹殿閣文鏡’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朴根七, 「唐 後期 錢荒對策의 展開와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32, 동양사학회, 1990.
- 박진경, 「金系 高麗銅鏡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08.
- 박장식, 「고대 한국의 청동기 기술체계」, 『한국열처리공학지』17-3, 熱處理工學會誌, 2004.
- 朴漢勇,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 _____, 「12세기 麗金交易에 대한 검토」, 『大東文化研究』3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6.
- 裴淑蘭, 李熙敦 譯, 「歷代銅鏡紋飾」, 『清溪史學』제16·17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학회, 2002.
- 신숙, 「고려 공예품에 보이는 宋代 ‘倣古器物’의 영향」, 『美術史研究』Vol.25, 미술사연구회, 2011.
- 안경숙, 「高麗時代 倣製鏡 製作에 대한 研究」, 『한반도의 청동기제작기술과 동아시아의 고경』, 경주박물관, 2007.
- 안귀숙, 「高麗時代 金屬工藝의 對中 交涉」, 『高麗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4.
- 李正守, 「中世 日本에서의 高麗銅錢 流通-日本の 出土備蓄錢을 중심으로」, 『韓國中世史研究』12, 한국중세사학회, 2002.
- 이송란, 「北九州 출토 고려 공예품으로 본 한일 교섭」,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靜齋 金理那 教授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예경, 2007.
- 李雲成, 「密陽茶竹里 出土遺物」, 『考古美術』第9卷, 考古美術同人會, 1968.
- 이용진, 「高麗時代 鼎形靑磁 研究」, 『美術史學研究』252, 한국미술사학회, 2007.
- 이종민, 「高麗 中期輸入 中國白磁의 系統과 性格」, 『미술사연구』25, 미술사연구회, 2011.
- 장남원, 「10~12세기 고려와 遼·金도자의 교류」, 『美術史學』23,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9.
- 全海宗, 「高麗와 宋과의 交流」, 『國史館論叢』第8輯, 國史編纂委員會, 1989.
- 정의도, 「宋·遼·金·元 수저(匙箸) 編年研究: 어미형순가락의 출현」, 『文物研究』No.17, 동아시아문화연구학회 재단, 2010.
- 조복현, 「12世紀 初期 高麗-金關係의 전개와 상호 인식」, 『中國學報』第61輯, 한국중국학회, 2010.

- 崔應天, 「고려후기 전환기의 미술 특집: 高麗後期の金屬工藝」, 『講座美術史』22,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4.
- 黃純艷, 「南宋과 金の 朝貢體系 속의 高麗」, 『진단학보』제114호, 진단학회, 2012.
- 황정숙, 『高麗 中·後期 思想을 통해본 銅鏡 文樣의 象徵性 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
- Ellen Johnston, Laing, “Chin Tartar Dynasty (1115–1234) Material Culture”, *Artibus Asiae* Vol. 49, No.1/2, 1988–1989.
- 陳章龍, 『宋代銅鏡分期初探』, 吉林:吉林大學校 考古學博物館學科 碩士學位論文, 2006.
- 李縉云, 『中國古代銅鏡中做制鏡的辨偽』, 『故宮所藏你應該知道的200件銅鏡』, 北京:紫禁城出版社, 2007.
- 孔祥星·李雪梅, 『關於金代銅鏡上的檢驗刻記』, 『考古』第2期,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2.
- 田華, 『金代銅鏡的刻款及相關問題』, 『北方文物』第3期, 黑龍江省文物管理委員會, 1995.
- A·JI·伊夫里耶夫, 陳玉璇 譯, 『關於中世紀銅鏡邊沿上的刻記』, 『北方文物』第4期, 黑龍江省文物管理委員會, 1996.
- 劉紹明, 『河南省南陽市博物館館藏金代鑄款刻記銅鏡』, 『北方文物』第4期, 黑龍江省文物管理委員會, 1997.
- Э·В·沙夫庫諾夫, 楊振福 譯, 『兩個假說—對兩面中世紀銅鏡的分析』, 『北方文物』第1期, 黑龍江省文物管理委員會, 2004.
- 姜宏宇, 『金代銅鏡紋飾之文化習俗考』, 『哈爾濱學院學報』第5期, 哈爾濱學院, 2006.
- 張雪巖, 『吉林集安出土的銅鏡』, 『文物』第6期, 文物出版社, 1986.
- 程民生, 『試論金元時期的北方經濟』, 『宋遼金元史』第3期, 三貴文化社, 2003.
- 劉際宇, 『吉林農安出土金代“濟州縣令寶”銅鏡』, 『文物』318, 文物出版社, 1982.
- 久保智康, 『中世·近世の鏡』, 『日本の美術』394, 東京:至文堂, 1999.
- , 『朝鮮半島における日本系銅鏡』, 『韓半島考古學論叢』, 東京:すずさわ書店, 2002.
- 植松勇介, 『唐末五代の鏡』, 『古代文化』第57卷 第1号, 古代學協會, 2005.

국문초록

高麗鏡은 수입된 외래경과 고려 자체 제작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그간 편년과 제작지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성을 중심으로 출토된 金鏡이 고려경의 제작과 연대에 자료를 제공해주어 주목된다. 金鏡에는 자체에 銘文이 있어 고려 중기 金과의 교역을 반영할 뿐 아니라 고려시대 제작된 외래경의 성격과 제작 양상을 분석해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金鏡을 중심으로 고려 미술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2~13세기 고려경의 제작 양상과 유통 상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金鏡의 銘文을 통해 12세기 전반부터 양국의 교역이 서서히 시작되면서 이후 12세기 중반~13세기 초를 중심으로 金鏡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문화의 중심지로 볼 수 있는 여러 지역을 통해 金鏡이 들어왔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북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지역은 高麗 銅器, 銅鏡이 출토된 곳으로 당시 발달했던 교통로를 이용할 경우, 사무역이 활발했던 압록강, 동해안 인근과 쉽게 교역했던 상황을 보여주었다.

둘째, 金鏡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人物故事文鏡이 고려에 특히 성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인물고사문경의 신선 및 도가적인 주제는 12~13세기 고려의 시대미감으로 金鏡을 수입해 모방하거나 방제한 金系 高麗鏡들이 활발히 제작되었다. 이러한 금계 고려경은 전각, 나무, 암석 등을 이용한 회화적인 구도와 도안으로 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일부의 高麗 金屬器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 및 주제를 볼 수 있어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龍樹殿閣文鏡, 日月煌丕昌天銘鏡이 외래경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안한 고려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金の 銅禁政策은 양국의 동경 생산과 유통을 활발히 해준 원동력이었다. 동금정책으로 인해 倣古鏡을 비롯한 다양한 私鑄鏡이 성행했는데 이는 양국의 동일한 경향으로 확인되었다. 銅이 부족했던 金の 상황은 高麗 銅器를 일찍부터 수출해왔던 고려에 영향을 미쳤고, 金과의 교역에서 고려가 고수익을 낼 수 있었던 銅鏡을 銅器와 함께 교역대상으로 삼아 유통했던 것이다.

A Study o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ryeo Bronze Mirror in the Jin Style

Park Jinkyung*

Bronze mirrors of the Jin Dynasty excavated in Gaeseong now in North Korea contain inscriptions which provide information about trade between Jin (or Geum in Korean, 1115-1234) and Goryeo (918-1392) and clu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rrors and aspects of production although few studies have been made on them so far.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ryeo mirrors in connection with the Jin mirrors in the period between 12th and 13th century.

Firstly, the inscriptions reveal that Jin mirrors were imported to Goryeo from the regional cultural hubs, particularly those in today's northeast China, between the mid 12th and early 13th century. Bronze artifacts of Goryeo, including mirrors, excavated in the area reveal a vigorous trade between it and the Amnokgang River and the ea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Secondly, the use of motifs conceived from famous historical episodes characterized Jin bronze mirrors and, under their influence, Goryeo mirrors as well. Goryeo artisans in the 12th and 13th centuries eagerly imported and copied Jin mirrors decorated with Daoist motifs, Daoist immortals in particular. These Jin-style Goryeo mirrors are characterized by representational imagery exploiting palatial buildings, trees and rocks, exerting an influence upon other metal artifacts of Goryeo.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artifacts such as the Mirror of the Dragon, Tree and Pavilion (龍樹殿閣文鏡) and the Mirror of the Sun, Moon and Superbly Dazzling and Flourishing Sky (日月煌丕昌天銘鏡) were newly created by

* PhD Candidate in Art History, University of Hongik

Goryeo artisans during the process of adopting the foreign cultural achievement.

Thirdly, the Jin's policy to prohibit the production of copper artifacts boosted the production and trading of bronze mirrors. A serious lack of copper in this country resulted in the trading of copper artifacts, including bronze mirrors and copper artifact at high prices, turning Goryeo bronze mirrors into a lucrative export item.